

---

## 제 9 회 PBNC 시드니 大會 제1 세션 주요발표 내용요약

---

않아야 할 것이다.

이라크는 IAEA의 핵사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발각되었다. 南阿公화국은 6개의 핵탄두에 搭載할 만큼의 무기용 핵물질을 비밀리에 생산 비축하였으나 나중에 그것을 IAEA에 自進申告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염려스러운 단

면을 보이고 있다.

IAEA는 핵사찰을 강화하기 위해 각 방면에 걸쳐 앞으로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1995년 종료되는 NPT 제도가 그 이후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인력과 기술 및 예산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太平洋 연안에서 原子力安全 확보 協力を 위한 미국의 지원책

이반 셀린(Ivan Selin)

미국 핵규제 위원회 위원장

原子力사업을 진흥하는데 要諦가 되는 것은 原子力安全文化를 定着시킴으로써 이것을 數地 選定, 설설, 건설, 운전과 補修에 적극 活用하고 生活化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은 원자력 안전의 質을 높이고 提高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규제에 원자력안전문화가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분야는 네가지다.

- ① 安全性提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하고 獨立인 規制기관을 設立運營해야 한다.
- ② 그 규제기관은 충분한 효율적인 자원, 人力 및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원자력산업계와 규제담당자 共히 핵연료週期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 분야에 적응되고 있는 기술基準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遵守해야 한다.
- ④ 국가는 국내法 내지 국제協力에 의거하여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損害補償策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法的 및 財政的 責任을 감당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의 네가지 요소와 그 밖의 몇가지 중점사항을 국제적으로 협의키 위해 오는 6월 국제원자력 안전회의(International Nuclear Safety Convention)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NRC는 최근 중부 및 동부 유럽과 옛 소련지역의 독립국가 연합국들에게 원자력안전 확보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원자력을 에너지 生産次元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문화 관점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전규제 협력방안으로서는 日本, 한국, 대만, 등과 규제요원 훈련 및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중이고 최근에는 이러한 일을 中國에도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협력각서를 작성중에 있다.